

## 혼합된 기독교를 어떻게 볼 것인가?

현대 기독교인들은 다른 종교를 신봉하는 사람들과 함께 사회라는 한 공간 안에서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든 국민들이 주체 사상이나 극단적인 이슬람 교리를 획일적으로 신봉하는 신정적인 사회가 위험한 것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온 국민이 100% 기독교를 신봉하는 기독교적인 신정 사회도 유토피아에 지나지 않으며 또한 바람직한 것도 아니다. 그런 사회는 선택의 자유를 억압해야만 가능한데, 하나님의 형상성의 특징들 가운데 하나인 자유를 존중하는 기독교와는 조화되지 않는다.

기독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다른 종교들은 사탄이 주관하는 거짓 사술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아니면 다른 종교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한 유효한 정보와 구원의 길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

로마서 1장 19절은 하나님이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는 모든 인류의 마음속에 생득적으로 하나님의 실재를 인식하는 능력 곧, 신 인식 능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러면 인류는 무엇을 보고 하나님의 실재를 인식하는가? 이어지는 20절에서는 하나님이 만물 안에 자신의 “능력과 신성”을 두셨다고 말씀한다. 만물 안에 인격적인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증거들이 있다는 뜻이다. 만물 안에 있는 창조주 하나님의 증거와 그 증거들을 파악해 내는 인간의 신 인식 능력



에 의하여 신의 실재를 말하는 종교가 성립된다. 그러나 타락한 인간은 이 두 가지 능력을 100% 활용할 수 없었다. 로마서 1장 21~23절 말씀처럼 부패하고 타락한 인간은 신 인식 능력과 만물 안에 있는 증거들을 통해 만물의 창조주를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만물 그 자체를 창조주로 잘못 인식하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말았다. 바로 여기에 이방 종교들의 명암이 있다.

이방 종교들은 신이 실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자연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실재하신다는 증거들이 있고 인간 안에 신 인식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밖에서도 신 존재 논증이 성립될 수 있다. 신 존재 논증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증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논증해 낼 수 없다고 해서 결코 무의미한 것은 아니다. 또한 합리성 자체가 절대적인 진리 인식 능력으로서 결함이 있고, 합리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는 후현대주의 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이성적 논증에 근거한 신 존재 논증이 불필요하다고 보아서도 안 된다. 신 존재 논증은 복음을 설명하기 위한 이방인들과의 공동 대화의 장으로서 의미가 있다. 합리적인 신 존재 논증만이 아니라 신화적 판타지를 통하여 기독교권 밖에서도 신의 실재에 대한 인식이 가능함을 보여준 루이스(C.S. Lewis)의 판타지 소설도 무의미한 일이라고 폄하해서는 안 된다. 루이스는 신화(mythology)가 신의 실재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주를 인격적인 존재들로 가득 차 있는 곳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의 실재 자체를 아예 인정하지 않는 현대의 유물론(materialism)보다 훨씬 더 나은 세계관이라 여기며 신화적 판타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신자들을 기독교라는 건물의 현관으로 안내하고자 한다.

이방 종교는 적어도 신의 실재를 인정하면서, 인간의 삶은 신과의 관련성 안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구원의 길은 신이 제시하는 길이라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은 이방 종교가 지닌 이러한 특징들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이 이방

종교를 인정해 줄 수 있는 한계는 여기까지다. 기독교인은 이방 종교가 제시하는 신관과 구원의 체계를 기독교에서 제시하는 것과 동등한 가치를 지닌 것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종교다원주의(religious pluralism)를 받아들여서는 안 되며, 기독교에서 믿는 하나님과 다른 종교에서 믿는 신을 동시에 섬겨도 된다고 주장하는 종교혼합주의(syncretism)를 경계해야 한다. 이 글의 주제와 관련하여 문제가 되는 것은 종교혼합주의이다.

종교혼합주의는 헤겔의 정합법 변증법에 근거한 낙관적인 종교이해로 합리적인 논증에 근거한다. 종교혼합주의는, 모든 종교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종교혼합주의는 이러한 관점에 근거하여 기독교 하나만을 배타적으로 신봉하기보다 기독교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면서 다른 종교들이 지닌 장점들을 첨가하여 종합할 때 훨씬 더 풍성하고 업그레이드 된 종교생활이 수립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종교혼합주의는 금상첨화의 논리이며, 은 쟁반에 금 사과 논리이다. 금으로 된 상도 아름답지만 그 위에 한 송이 꽃이 놓이면 더 아름다운 그림이 될 수 있지 않느냐는 것이다. 은 쟁반도 물론 좋지만 그 위에 금으로 된 사과를 하나 없으면 훨씬 더 탁월한 그림이 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기독교인들이 종교혼합주의에 빠지는 데는 매우 강력하고 현실적인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것을 광야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발견할 수 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고센 땅에서 400년 가까이 목축하며 생계를 유지했고, 출애굽 직전에는 벽돌을 만드는 일이 추가되었다. 40년 광야여행을 하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내려주시는 물과 양식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직후부터 물과 양식의 기적적인 공급이 주어지지 않았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제부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농사를 지어서 생계를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40년이 훨씬 넘는 긴 기간 동안 농사를 지어 본 경험이 없다는 데 있었다. 이스



**이상원** 총신대학교 신학과(문학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목회학 석사)를 거쳐 미국 웨스트민스터신학교에서 신학석사, 네덜란드 캄펜 신학대학교에서 신학박사를 수료하였다. 현재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기독교윤리학/조직신학 교수이며, 기윤실 신학위원장과 기독교윤리연구소장, 한국복음주의윤리학회 회장, 성산생명윤리연구소장,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상임위원장을 역임했고, 현재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공동대표로서 섬기고 있다.

라엘 백성들은 농사짓는 법을 배워야만 했다. 누구로부터?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는 원주민들로부터.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농사를 잘 짓는 법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다. “풍성한 수확을 거두는 지름길은 바알이나 아세라와 같은 농사를 관장하는 신을 잘 섬겨서 그들을 노엽게 하지 않고 그들의 마음을 얻는 것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전쟁에는 능하신 것이 분명하지만 농사에는 특화되지 않으신 것 같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계속 배타적으로 섬길 것인가, 아니면 여호와 하나님을 주신(主神)으로 섬기되 여호와 하나님께 양해를 구하고 농사에 한해서만은 농사에 특화된 바알과 아세라를 보조신(補助神)으로 섬길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서 후자 곧 종교혼합주의를 선택했고, 끝내 종교혼합주의의 굴레에서 헤어나지 못하다가 멸망당하고 말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계 유지라는 절박한 명분 때문에 종교혼합주의에 빠져들어 갔던 것처럼, 기독교인들도 현실 속에서 생존이라는 절박한 명분 때문에 종교혼합주의에 말려들어갈 위험성이 크다. 기독교인들은 교회에서 배우는 삶의 원리와는 전혀 다른 원리가 지배하고 있는 현실에 직면한다. 기독교인은 교회에서는 자기를 희생하고 타인의 유익을 도모하며, 사회적 약자들을 우선적으로 돌보고, 경쟁하기보다는 협동에 힘쓰고, 술수를 구사하기보다는 정직하게 살라는 가르침을 받는다. 그러나 생계가 달린 삶의 현장에서는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유익을 확보하고자 하고, 능력과 돈, 사회적 지위가 있는 자들을 우러러보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치열하게 경쟁하고, 정직의 원리를 무시하며, 모든 술수를 동원하여 이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약육강식의 원리, 효율성의 원리의 지배를 받는다. 이런 원리들을 따르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해 보인다. 이처럼 두 가지 유형의 가치관이 대립하는 냉엄한 삶의 현장에서 기독교인은 생존을 보장해 주는 후자의 원리를 선택하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되고, 많은 기독교인들이 그 유혹에 넘어간다. 기독교인은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지 않은 상태에서 세상을 지배하는 신을 동시에 섬기게 된다. 무엇 때문에? 현실적인 생존의 절박함 때문에!

교회 안에서는 성경의 원리에 따라 생활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삶의 현장에서는 그 현장을 지배하는 삶의 원리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기독교인이 토정비결이나 관상, 타로점, 조상 숭배 등과 같은 통속적인 이방의 무속종교 관습을 기웃거리는 것도 같은 동기에 의거한 현상들이다. 태어난 연월일에 관한 정보를 조합하여 인간의 길흉화복을 예측해 보려고 시도하는 토정비결이나, 얼굴의 모양과 형태를 조합하여 운명을 알아내고자 하는 관상이나, 카드의 그림이 담고 있는 상징적인 의미들을 이용하여 앞날을 예측하고자 하는 무속적인 종교관습들은 모두 현실적인 삶에 찾아오는 화를 피하고 재물이나 사회적 지위, 결혼 상대자들을 얻는 등 생존에 직결된 문제들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 내고자 하는 절박한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시도들이다.

모든 종교는 나름의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점들만 모아서 종합한 새로운 종교는 훨씬 더 풍부한 종교생활을 가능하게 해 준다는 종교혼합주의의 논리는 합리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종교혼합주의가 지니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가? 종교혼합주의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본질적으로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단지 논리적인 특성만 지니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 정, 의, 몸 등 전인적이며 인격적인 관계다. 인격적인 관계의 특성은 그 관계가 친밀해질수록 외부에 대해서는 배타성을 띠는 점이다. 종교혼합주의는 이 점을 간과한다.

예컨대 A가 절친 B에게 자신의 비밀스러운 이야기를 모두 털어 놓는다는 것은 B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는 그 이야기를 말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한다. 만일 A가 B에게 털어 놓은 비밀 이야기를 B와 별로 친하지도 않은 C, D, E 등에게 모두 말했다는 사실을 B가 알았다면 B는 A를 어떻게 생각할까? 아마도 B는 A가 교우의 폭이 넓다는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A에게 깊은 배신감 같은 것을 느낄 것이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 보자.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한 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이다. 부부관계는 모든 인간관계들 중 외부인에 대해 가장 배타적으로 나타나기 마련이

다. A가 얼굴도 예쁘고 마음도 천사 같고 살림도 잘하는 현모양처 B와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그런데 건넌마을에 B와 동일한 조건을 갖춘 여인 C가 살고 있다. 이때 A가 C를 또 아내로 맞아 B와 함께 산다면 A는 B 한 명과 살 때보다 두 배의 행복을 누릴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C가 들어오는 순간 A의 가정은 풍비박산이 날 것이며, 그렇게 착하고 아름답던 B와 C는 질투의 화신이자 싸움꾼으로 변하고 말 것이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어떤가? 부부 관계가 아무리 친밀해도 두 몸이 하나로 연합되지는 않는다. 부부관계에서는 다만 정신과 사고방식이 서로 닮아가고 생활하는 방식이 서로 조화를 이루는 것뿐이다. 그러나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는 하나님이 기독교인 안에 들어오시고, 기독교인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 실제로 하나로 연합되는 친밀한 관계다. 이 정도로 친밀한 관계라면 하나님이 외부의 존재에 대해 철저하게 배타적인 태도를 취하시는 것이 당연하다.

바르고 건강한 신앙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행장(行裝)이 단순해야 한다. 기독교인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유일하신 주님으로 믿으며 다른 보조신(補助神)들은 과감하게 떨쳐 버리고 단출하게 나아가야 한다. 그 래야 영적으로 건강하고 힘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처럼 종교혼합주의는 하나님과 기독교인의 관계를 오해하고 있다. 또한 종교혼합주의가 성공적인 삶을 보장해 줄 것이라는 생각은 신기루에 지나지 않는다. 나아가 종교혼합주의는 오히려 생존을 위협하고 삶의 질을 심각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왜 그럴까?

대체로 종교혼합주의의 대상이 되는 이방 종교들은 피조물 가운데 하나를 하나님으로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치지만 자신들이 통제할 수 없는 어떤 세력을 신으로 신격화하여 숭배하는 습성이 있다. 이들은 태양, 번개, 바다, 대지, 강풍 등을 신격화한다.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제1계명은 이런 세력들을 신으로 숭배하지 말라는 것이다. 숭배한다는 것은 어떤 대상에게 철저하게 굴종하는 노예가 된다는 뜻이다. 따라서 제1계명은 노예가 될 정도의 굴종적인 숭

배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께만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제외한 어떤 세력에게도 노예처럼 굴종하지 말라는 뜻이다. 다시 말하면 제1계명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세력들로부터의 자유를 말한다. 제1계명을 따를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피조계의 세력들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분석하며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피조물을 신으로 숭배하는 것과 그것들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이용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만일 번개가 신이라면 번개가 인간을 향해 내려 쏘더라도 감히 항거해서는 안 된다. 인간이 번개에 항거한다면 신의 노여움을 사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번개가 신이 아니라 자유롭게 탐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이라면 번개를 탐구하여 정체를 파악한 후 번개를 피할 길을 모색할 수 있다. 그 결과 고안해낸 것이 피뢰침이다. 만일 소가 신이라면 아무리 먹을 것이 없어 굶주려도 소를 잡아 먹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소가 신이 아니라 피조물 이므로 인간이 자유롭게 탐구하고 이용할 수 있다면 소를 잡아먹고 기운을 차릴 수 있을 것이다. 종교혼합주의는 궁극적으로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고 마침내는 인간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기도 한다. 그러나 하나님 한 분만을 배타적으로 섬기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면 오히려 피조물을 자유롭게 탐구하고 이용함으로써 생존 가능성과 삶의 질을 획기적으로 증진시킬 수 있다. 따라서 피조물을 신과 동일시하여 섬기는 종교관습이 지배적이었던 동양사회에서는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이 미미했고, 수천 년이 지나는 동안에도 인간의 생존률과 삶의 질은 거의 발전하지 못했다. 그러나 기독교의 유일신 신앙을 받아들인 서양에서는 획기적인 과학과 과학기술의 발달로 생존률과 삶의 질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기독교인은 이방 종교들이 신의 실재를 인정하고 신과의 관계 안에 진정한 삶이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현실 속에서 생존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에다가 이방 종교에서 신봉하는 신을 첨가하는 종교혼합주의에 빠져들어서는 안 된다. 종교혼합주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시키고 생존의 가능성과 삶의 질을 현격하게 떨어뜨리는 왜곡된 종교관습이다. 